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 중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**부산지방검찰청**  
인권보호관/전문공보관 이영규  
전화 051-606-4164

**보 도 자 료**  
**2023. 3. 30.(목)**

**제 목    검찰 직접 보완수사로 대규모 투자사기 범행 규명**

**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**

- ☒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☒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 금지정보

- 부산지방검찰청 형사 제1부(부장검사 박대범)는 총 1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20억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일당의 범죄를 규명하여, 그중 2명을 3. 17. 구속 기소하고, 3. 30. 1명을 구속, 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  - 피고인들은 게임 개발 사업을 통한 고수익 보장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1개월 만에 약 20억원의 투자금을 받았음
- 이 사건은 원래 피해자 3명으로부터 7,275만원을 편취한 단순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서 송치되었으나, 송치 후 검찰의 전면적 보완수사(계좌추적, 사무실 및 주거 압수·수색, 모바일포렌식 등)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던 대규모 투자사기 범행의 전모가 밝혀진 것임
  - 송치된 주범의 추가 범죄, 관리자 및 모집책의 범죄, 범죄수익을 은닉한 범죄를 모두 규명하고 6명을 추가로 적발하였으며 그중 2명을 직접 구속하였음
- 부산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다수 서민의 피해를 양산하는 유사수신·사기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‘죄에 상응하는 처벌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

## 1

## 사건개요

### 1. 피고인

- 총책 : A(59세), 구속(경찰)
- 불법 유사수신 조직 관리자 : B(56세), 구속(검찰)
- 중간모집책 : C(56세), D(48세), E(60세), F(49세)
- 자금세탁사범 : G(62세), 구속(검찰)

### 2. 공소사실 요지

- A는 게임 개발 회사 대표로 행세하며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, B는 투자금을 수신하고 모집책들을 관리하는 역할, C~F는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여,
  - A, B는 '22. 12.~'23. 2. 총 127명의 피해자들에게 '게임 개발 사업을 통해 매일 5%의 수익금을 주어 30일 내에 투자금의 150%를 지급하겠다'고 속여 20억원 상당을 편취함 [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]
  - C~F는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6,800만원 ~ 1억원 상당을 수신함 [유사수신행위법위반]
- G는 '23. 2. 피해금 1억 4,200만원 상당을 출금한 후 수개의 계좌로 분산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고, 2억원 상당의 도박을 함 [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도박]

##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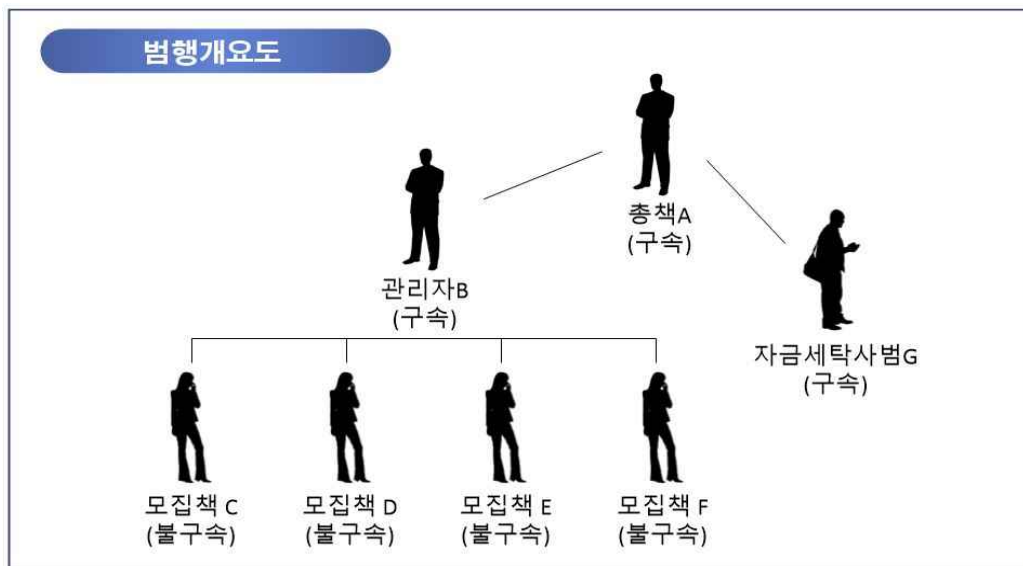
## 수사경과

- '23. 2. 7. A 경찰 구속 송치(피해자 3명, 피해액 7,275만원)
- '23. 2. 14. A, B 추가범죄 인지(피해자 127명, 피해액 약 20억원)
- '23. 3. 2. B 구속
- '23. 3. 12. G 범죄수익은닉 범죄 인지
- '23. 3. 17. A, B 구속 기소
- '23. 3. 24. G 구속
- '23. 3. 27. C, D, E, F 범죄 인지
- '23. 3. 30. C, D, E, F, G 기소

### 3 수사내용

#### 1.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드러나지 않은 대규모 투자사기의 전모 규명

- 경찰은 A의 피해자 3명에 대한 7,275만원 편취 단순 사기 사건으로 송치했으나, 검찰은 A의 범행태양과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 범죄 가능성이 있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면 재수사 착수
- 계좌추적, 압수·수색 등 해당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20억원을 편취한 범죄의 전모를 밝혀냄
  - 계좌추적 영장을 집행하여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, 관련자들의 사무실, 주거지 등을 압수·수색하여 거래장부 등을 확보함으로써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특정하였으며, 계좌추적 과정에서 포착된 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파악함
  - 송치된 A의 추가 범죄, 관리자 B 및 모집책 C~F의 범죄, 범죄수익을 은닉한 G의 범죄를 모두 직접 규명하고 그 중 B, G를 직접 구속함



#### 2. 서민다중피해범죄 사범을 조기에 엄단함으로써 추가 피해 방지

- 유사수신 조직을 이용한 투자사기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므로, 범행 초기에 신속한 수사를 통해 피해확산을 방지해야 함

- A의 사건 송치 후 심층적인 재수사를 통해 유사수신 조직 관리자 B, 모집책 C~F를 비롯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G까지 적발함으로써 추가적 피해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함
- 또한, 범죄수익 1억 4,200만 원을 출금한 후 자금세탁을 거쳐 은닉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G를 구속하여 엄단함

## 4 향후계획

- 부산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다수 서민의 피해를 양산하는 유사수신·사기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범죄행위에 대하여 ‘죄에 상응하는 처벌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